지방행정연구 제40권 제1호(통권 144호) 2026. 3. 309~336
DOI http://dx.doi.org/10.22783/krila.2026.40.1.309

무엇이 주민의 마을공동체 참여를 이끄는가?
: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가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What Drives Residents' Participation in Community Building?
: Focusing on the Differences in Value Perception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한 병 훈**
Han Byunghoon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무엇이 주민의 마을공동체 참여를 이끄는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탐색하기 위해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비참여자의 향후 참여 의향에 물리적 환경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 인식 중 어느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쟁가설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비참여자는 마을을 기능적 편의가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 환경 만족도는 참여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웃 간 신뢰와 소속감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 인식은 참여 의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물리적 환경 개선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주민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비참여자의 생활 문제 해결 요구를 매개로 주민 협력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신뢰가 자발적 참여로 이어지도록 하는 관계망 중심의 단계적 지원 전략을 제안한다.

□ 주제어: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의향, 사회적 자본

* 본 연구는 성남시정연구원에서 2025년 정책연구과제 보고서로 발간된 "성남시 살기좋은우리동네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객원연구원
논문 접수일: 2026. 2. 2. 심사기간: 2026. 2. 2. ~ 2026. 3. 23. 게재확정일: 2026. 3. 23.

To explore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at drives residents’ participation in community-building activities?”, 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case of Seongnam City. The analysis tests competing hypotheses to determine whether satisfaction with the physical environment or perceived social capital has a stronger influence on non-participants’ intention to participate. The results reveal a notable discrepancy between preferences and behavioral determinants. Non-participants tend to perceive the neighborhood as a functional “space” and prioritize improvements in the physical environment. However, satisfaction with the physical environment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Instead, only perceived social capital—reflected in neighborly trust and a sense of belonging—emerges 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participation inten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cies centered solely on physical infrastructure improvements face inherent limitations in expanding citizen participation.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a relationship-oriented, phased support strategy that first provides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ve activities addressing residents’ everyday concerns and gradually builds trust among neighbors, thereby fostering voluntary participation in community initiatives.

□ Keywords: Community Building, Intention to Participate, Social Capital

Ⅰ. 서론

도시는 외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정작 그 안의 사람들은 점차 고립되어 가고 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들은 살기 좋은 동네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 역량을 투입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신뢰와 연결의 경험은 오히려 희소해지고 있다. 이제 사회적 연결의 약화는 개인의 정서 문제를 넘어 공공정책의 핵심 의제가 되었다. OECD(2025)는 사회적 연결을 국가 차원의 복지·회복탄력성 지표로 제시한 바 있으며, WHO 역시 이를 글로벌 보건 의제로 채택하는 등 고립은 새로운 공공 위험으로 공식화되는 추세다(WHO, 2025).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데이터처(2025)의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고립 관련 지표가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이에 지자체 차원의 정책 시도도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가 외로움 문제를 공식 의제로 설정한 것이 대표적이다(서울시, 2024). 한국의 지방정부들도 이제 고립과 외로움 문제를 개인의 사적 어려움이 아니라 공공정책이 대응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 정책 또한 재정립이 요구된다. 기존 참여 정책은 흔히 절차적 민주성이나 거버넌스 혁신의 명분으로 정당화되어 왔다(Mansbridge et al., 2012). 그러나 주민참여 자체가 언제나 절대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정책 목표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Fung, 2006; 구기환, 2024; 김지영·정문기, 2024). 시민의 일상은 생업과 돌봄 등 이미 많은 과업으로 채워져 있다. 또한 공공의 영역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참여의 기회비용을 수반한다(Fung, 2006). 따라서 모든 주민에게 상시적이고 고도화된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자칫 행정 편의적인 참여의 강요나 주민들의 참여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김미연·김인설, 2018). 그러므로 오늘날 참여 정책은 단순한 절차적 명분이 아닌 도시의 고립을 완화하고 사회적 자본을 재구성하는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실용적 가치로 재평가되어야 한다(진은애·이우종, 2018; 채진해 외, 2020).

문제는 정책의 확장성이다. 많은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만족도는 높으나 참여가 소수 활동가에게 고착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이영아, 2013; 김미연·김인설, 2018; 김지영·정문기, 2021). 최근의 객관적 지표는 이러한 정책적 한계를 보여준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자료에 따르면, 공모사업에 참여한 공동체 수는 2021년 1,602개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하여 2024년에는 1,004개로 집계되었다. 보조금 규모 또한 2023년 약 82억 6천만 원에서 2024년 약 65억 2천만 원으로 감소하여 약 21.0%의 축소가 나타났다(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25). 이러한 변화는 공모사업 중심의 마을공동체 양적 확대 전략이 일정한 조정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며, 마을공동체 사업이 다수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는 데 한계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기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이것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정책적 효용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참여정책의 성패는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비참여 시민을 어떻게 참여자로 전환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왜 대다수의 일반 시민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무관심하며, 참여는 소수의 이른바 '전문 활동가' 집단에 독점되는가? 이는 시민들의 합리적 무관심과 구조적 진입 장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Fung, 2006; 김지영·정문기, 2023). 참여는 시간, 관계, 정보, 심리적 안전감 등 복합적인 자원을 요구하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특정 집단이 참여 기회를 선점하기 쉽다(Fung, 2006). 즉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참여에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공공적 편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비참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재의 공모사업 중심 마을공동체 제도는 제안서 작성, 사업 운영, 정산 등 일련의 절차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와 행정 경험을 요구한다. 실제로 많은 마을 회의와 공동체 활동이 평일 주간에 이루어지며, 기존 참여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러한 물리적·사회적 조건은 직장 생활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경제활동 인구와 청년층(김지영·정문기, 2023), 여성에 비해 지역 내 비공식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약한 남성(Conway & Hachen, 2005; 김흥순·원준혁, 2013), 그리고 이웃 관계 형성이 제한적인 아파트 중심 신도시 거주자(김미연·김인설, 2018) 등이 참여 과정에 진입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기존 시스템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해서 참여에 대한 내재적 욕구마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깊게 경험하는 집단일수록,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웃과의 관계망 형성과 상호 교류에 더 큰 효용을 느끼며 민감하게 반응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박병훈·정의철,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높은 진입 장벽은 주민참여가 오히려 지역 내부의 참여 격차를 재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참여 확대를 위한 단순한 구호와 독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누가 왜 참여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비참여가 참여로 전환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회비용과 제도적 장벽을 고려할 때, "물리적 시설을 확충하면 참여는 뒤따를 것"이라는 지자체의 하드웨어 중심적 통념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김미연·김인설, 2018; Woo et al., 2023). 다수의 연구는 시설 개선이 거주 만족도를 높일 순 있어도 능동적 참여로 직결되지는 않으며(고현종 외, 2025; 박병훈·정의철, 2021; 김지영·정문기, 2023), 이를 실제 참여 행동으로 전환하려면 이웃 간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매개가 필수적임을 지적한다(강종구·문국경, 2022; 구기환, 2024; 손예민·이건원, 2024). 결국 참여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상호 신뢰를 축적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연계 메커니즘의 구축에 있다(Nie & Feng, 2025; 이경영 외, 2018; 진은애·이우종, 2018).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주민참여의 확장성을 가로막는 요인을 환경·시

설 중심 접근이 아닌, 신뢰를 매개로 한 행동 전환 메커니즘에서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의 '살기좋은우리동네만들기(마을공동체)' 사업을 대상으로 (1) 참여 경험 유무에 따라 주민들이 마을을 바라보는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2) 비참여자의 향후 참여 의향에는 물리적 환경 만족과 사회적 자본 중 무엇이 더 주된 영향요인인지, (3) 거주 기간과 거주 지역(신도시/원도심)이라는 특성이 신뢰의 효과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본 연구가 여러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성남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남시는 1970년대 철거민 이주를 계기로 형성된 원도심(수정·중원구)과 1990년대 이후 조성된 계획도시(분당구)가 공존하는 이원적 도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동일한 도시 내에서 주거 형태와 주민 간 관계 형성 조건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구조는 물리적 인프라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 대도시의 특성을 보여준다. 둘째, 경기도 전반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축소되는 흐름 속에서 성남시 역시 정책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2023년 53개였던 참여 공동체 수는 2024년 43개로 감소하였고(-18.9%), 보조금 총액 또한 27.0% 감소하였다(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25). 셋째, 최근 성남시는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이유로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의 지원센터를 폐지하고 행정 직영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예산 축소와 행정 효율성 강화라는 최근 마을공동체 정책 흐름과 맞물려 있으며, 행정 주도성과 주민 주도성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성남시 살기좋은우리동네만들기(마을공동체) 사례를 통해 물리적 환경 개선 이후 단계에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작동시키는 기제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참여 경험에 따른 가치 인식의 분화

주민참여 정책에서 흔히 간과하는 사실은 주민을 단일한 욕구를 가진 집단으로 전제한다는 점이다(Arnstein, 1969).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는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사이에 명확한 인식의 격차가 존재함을 지적한다(김지영·정문기, 2023; 채진해 외, 2020). 이 격차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도시 공간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크다(김근호 외, 2012; 채진해 외, 2020).

일반적으로 주민의 참여 경험은 주거지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조소

진·정환영, 2017; 노병찬·주덕, 2016). 비참여자는 주거지를 생존과 휴식의 공간으로 인식하며 편의성·안전성 등 기능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반면(김지영·정문기, 2023), 참여 경험이 축적될수록 주거지는 소통과 활동의 공간으로 재해석되고, 이웃관계나 지역의 상징성과 같은 관계적·공유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된다(조소진·정환영, 2017; 채진해 외, 2020). 이러한 인식 전환의 방향성은 도시재생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의 인식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강맹훈 외(2017)에 따르면, 전문가는 공동체 의식과 추진조직 등 비물리적 요소를 상대적으로 중시한 반면, 주민은 거주 및 생활환경 개선과 같은 체감 가능한 물리적 사업을 우선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많은 주민들이 아직 공동체 활동이나 사업 과정에 대한 참여 경험이 부족하여, 관계적 가치보다는 당장의 생활 여건 개선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강맹훈 외, 2017; Li, Y. et al., 2025).

채진해 외(2020)가 수행한 서울시 공동체 정원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비참여 주민은 정원이 주는 가치 중 여가·휴양 및 생태적 보전 등 개인적이고 기능적인 혜택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반면, 참여 주민은 정원이 지닌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적 가치와 이웃 교류의 장으로서의 공유적 가치를 비참여자보다 높게 평가했다. 특히 상징적 가치 항목에서는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참여 경험이 단순한 시간 투입이 아니라, 공간을 개인(private)의 휴식처에서 공동체(public)의 공유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김미연·김인설(2018) 역시 마을지 만들기 사업 참여자들이 초기에는 개인적 기록 욕구로 시작했으나, 활동 과정에서 공동체의 역사라는 공적 가치로 시야가 확장되는 현상을 질적으로 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인식의 진화는 참여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생한다. 조소진·정환영(2017)의 연구에 따르면, 마을만들기 사업에 1회 참여한 주민은 거시적인 문제 인식에 그쳤으나, 5회 이상 참여한 주민은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주민 간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관계적 인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 경험이 단발적인 체험에 그칠 경우에는 인식 변화가 제한적인 반면, 반복적인 참여가 누적될수록 사업의 성과를 관계와 협력의 차원에서 바라보게 됨을 보여준다.

결국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인식 격차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욕구의 위계(hierarchy) 차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김지영·정문기(2023)의 AHP 분석에 따르면, 비참여자가 꼽은 주된 비참여 원인은 '생업 및 경제적 자원 부족'인 반면, 참여자의 가장 중요한 참여 요인은 '시민의식'이었다. 즉, 비참여자는 아직 생존과 편의라는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며, 참여자는 이를 넘어 자아실현과 관계라는 상위 단계의 욕구로 진입한 상태다. 따라서 정책은 이 격차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공동체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비참여자의 기능적 욕구를 충족시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후 관계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유도하는 단계적 접근 전략을 취해야 한다.

2. 참여의 영향요인

전통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도시재생 사업은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면 주민 만족도가 오르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참여로 이어진다는 환경·시설 결정론적 가정에 기반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김미연·김인설, 2018; Woo et al., 2023). 그러나 최근의 실증 연구들은 이러한 선형적 인과관계에 한계를 지적한다(이경영 외, 2018; 손예민·이건원, 2024). 물리적 환경 만족도는 거주 의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는 있어도, 주민을 능동적인 참여자로 이끄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손예민·이건원(2024)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이를 잘 보여준다. 주거만족도(물리적 환경 포함)가 참여 의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미미했으며,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매개변수가 있어야만 유의미한 참여 행동으로 이어졌다. 즉, 정비된 보행로와 공원은 주민을 지역에 머물게 할 수는 있겠으나, 문을 열고 나와 이웃과 어울리게 하는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구기환(2024) 또한 참여의 단계를 구분하여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한다. 동네 만족도(물리적/환경적)는 공청회와 같은 소극적·초기 단계 참여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실질적인 도시재생 사업 참여에는 이웃 관계 만족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물리적 시설이 주민을 유도하는 초기 진입 장벽 완화 기제로는 유효하나, 지속적인 참여 동력으로는 작동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성순아 외(2015)는 도시재생 참여 동기 분석을 통해, 주민들이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은 성취감과 기대감이며, 물질적 보상 동기는 지속적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실증하였다.

그렇다면 비참여자를 움직이는 동인은 무엇인가? 다수의 선행연구는 물리적 자산이 아닌 사회적 자산, 그중에서도 신뢰(trust)와 애착(attachment)을 핵심 변수로 강조한다(강종구·문국경, 2022; 이경영 외(2018); Nahapiet & Ghoshal, 1998; Nie & Feng, 2025).

Nahapiet & Ghoshal(1998)은 특히 관계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을 신뢰와 동일시(identification)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개인이 자신과 공동체를 동일시하는 심리적 유대가 협력과 참여의 기반이 된다고 보았다. 이는 지역사회 맥락에서 흔히 사용되는 소속감이나 지역애착 개념이 관계적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임을 시사한다. 강종구·문국경(2022)은 물리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지역의 사회적 자산이 강할수록 참여 의사가 뚜렷하게 높아짐을 실증했다. 특히 이들은 물리적 혜택보다 지역 사회 내의 갈등을 조정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소프트웨어 역량이 참여의 선행요인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경영 외(2018)는 주거환경만족도가 직접 참여를 유발하기보다, 지역애착도를 매개로 할 때 참여 효과가 극대화됨을 밝혔다. 이는 물리적 시설 공급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주민들의 심리 기제인 애착과 신뢰로 연결될 때 비로소 참여라는 행동으로 나

타남을 의미한다. 고현종 외(2025)의 최신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여, 주거환경(하드웨어)과 대인 신뢰(소프트웨어)가 결합될 때 삶의 만족도와 참여 의지가 증가하는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했다.

그렇다면 신뢰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가? 진은애·이우종(2018)은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보다 문화·봉사 등 소프트웨어적 마을 활동이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 형성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이는 Nahapiet & Ghoshal(1998)이 지적했듯이 사회적 자본이 제도나 시설이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구성원 간 반복적 상호작용과 동일시 과정 속에서 축적된다는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즉, 주민을 참여자로 전환시키는 신뢰 자본은 완성된 공간이 아니라, 함께 활동하는 경험이 축적되면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선행연구들은 시설 확충만으로 참여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가정을 지지하지 않는다. 대신 애착이 형성되고, 신뢰가 축적될 때 비로소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물리적 환경 개선이 주민 만족도와 참여를 함께 높일 것이라는 전제 아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구기환(2024)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이 초기 단계의 소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진입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정책에서 중요하게 전제되어 온 '물리적 환경 만족도'의 효과(가설 1)를, 본 연구가 주목하는 '사회적 자본'의 효과(가설 2)와 대비되는 경쟁 가설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물리적 환경 중심 접근과 사회적 관계 중심 접근 가운데 어느 요인이 비참여자의 참여 전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물리적 환경 만족도는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사회적 자본 인식은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거주 특성의 역설과 조절효과

Putnam(2000)을 비롯한 전통적인 사회자본론에 따르면,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네트워크가 축적되어 참여가 활성화된다는 견해가 정설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Li et al.(2025)은 도시재생 지역에서 장기 거주자들이 변화에 대한 피로감과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오히려 현재의 변화와 참여를 거부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이들은 물리적 거주 기간은 길지라도, 심리적으로는 지역 변화에 냉소적이거나 과거 실패 경험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구기환(2024)의 연구 결과 또한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한다. 분석 결과, 거주 기간 자체가

도시재생 사업 참여 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장기 거주자=지역사회의 주인'이라는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시사하며, 오히려 타성에 젖은 장기 거주자보다 변화를 기대하는 신규 이주자가 더 큰 참여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상은 연구의 시선을 신규 전입자와 청년층으로 확장시킨다. 박병훈·정의철(2021)은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38세 미만 청년 가구의 경우 이웃 관계 만족도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한계효과)이 타 연령대보다 크다는 점을 규명했다. 이는 젊은 층이나 신규 전입자가 이웃 관계에 무관심할 것이라는 통념을 반증하는 결과이며, 오히려 낯선 환경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맺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노병찬·주덕(2016)은 대전시 사례 연구를 통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단지이거나 자발적 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일수록 참여 만족도가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됨을 입증했다. 익명성이 강한 아파트 단지(신도시)는 자생적 커뮤니티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제공된 신뢰 구축 프로그램이나 참여 기회에 대한 주민 반응도(민감도)가 원도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하면, 거주 기간과 거주 지역 특성은 사회적 신뢰가 참여 행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강도를 달리하는 조절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집단별로 참여를 유발하는 동기가 상이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거주 특성의 조절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 거주 기간은 사회적 자본 인식이 참여 의향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강화할 것이다.

가설 4: 신도시 거주자는 원도심 거주자에 비해 사회적 자본 인식이 참여 의향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더 클 것이다.

Ⅲ. 연구 설계

1. 분석 대상 및 자료 특성

본 연구의 공간적 배경인 성남시는 개발 시기의 차이에 따라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관계망이 서로 다르게 형성된 이원적 도시 구조를 지니고 있다. 1960~70년대 철거민 이주를 계기로 형

성된 원도심(수정·중원구)은 도시환경의 노후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 활력이 저하되는 물리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장기간 거주를 통해 형성된 비공식적 주민 네트워크가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다(성남시, 2016). 반면 1990년대 이후 계획적으로 조성된 신도시(분당구)는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아파트 중심의 주거 형태로 인해 익명성이 높고 이웃 간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약한 특성이 나타난다(성남시, 2016).

이와 같은 구·신도심의 상이한 지역적 과제에 대응하고 약화된 공동체 유대를 회복하기 위해 성남시는 2010년대 초반부터 마을만들기 정책을 추진하였다(성남시, 2016; 성남시, 2018). 2015년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 제1차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고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사업을 확대하였다. 이후 2025년 제2차 기본계획(2025~2029) 수립 과정에서는 물리적 환경, 복지, 안전, 지속가능성 등 삶의 질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2024년부터 사업 명칭을 '살기좋은우리동네만들기'로 개편하였다(한병훈 외, 2025).

특히 앞서 언급한 이원적 도시 구조의 영향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전개 양상도 원도심과 신도시에서 차이를 보였다(한병훈 외, 2025). 원도심(수정·중원구)의 경우 주차난 해소,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노후 담장 정비, 골목 화단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낙후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매개로 골목 단위 공동체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물리적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신도시(분당구)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북카페나 공유공간 조성, 공동육아 품앗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모임 등 주민 간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화된 생활 환경 속에서 주민 간 교류와 관계망 형성을 촉진하려는 성격의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약 10여 년간 추진된 본 사업은 일정한 양적 성과를 축적해 왔다. 본 연구의 기초 자료인 2025년 실태조사 결과(한병훈 외, 2025)에 따르면, 실제 사업 참여자의 활동 만족도는 79.3%, 재참여 의향은 89.7%로 나타나 참여자 개인 수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사업 인지도는 약 32%에 그쳐 사업의 효과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일부 참여자 집단에 국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사업을 인지한 이후의 잠재적 참여 의향은 85% 이상으로 조사되어, 비참여 시민이 참여로 전환될 가능성 또한 확인되었다.

한편 성남시는 2023년 11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던 중간지원조직을 폐지하고 행정직영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행정 절차는 일부 간소화되었으나, 참여자들은 복잡한 행정 서류와 소통의 어려움(41.4%)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한병훈 외, 2025). 이러

한 변화는 민·관 및 주민 간 신뢰 관계의 약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사례는 물리적 지원이나 행정적 관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주민 간 신뢰와 사회적 관계 요인이 참여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연구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성남시정연구원이 수행한 「성남시 살기좋은우리동네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조사는 성남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진행되었으며, 조사 기간은 2025년 4월~5월이다. 표본 추출은 성남시 3개 구의 인구 비례를 고려한 할당 표집 방식을 적용했다. 분석 대상은 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일반 시민 650명과 사업 참여자 29명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 집단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활동에 1회 이상 참여 경험이 있는 자로 정의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며, 이는 해석 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사업 참여자 표본 수(N=29)의 절대적 크기가 일반 시민(N=650)에 비해 작다. 이는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 강화로 인해, 사전 정보제공에 동의한 유효 모집단(sampling frame) 자체가 약 150명~200명 미만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표본의 크기는 작으나, 본 연구는 Welch's t-test뿐만 아니라 5,000회 복원 추출(resampling) 기반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정을 추가로 적용하여 표본 불균형에 따른 통계적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분석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보하였다. 이는 김지영·정문기(2021)가 지적한 바와 같이 참여자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비참여 시민의 인식 구조를 실증 분석한다는 연구적 의의를 최대한 살린 것이다.

2. 연구 가설 및 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된 논의를 바탕으로, 물리적 환경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 인식이 참여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거주 특성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물리적 환경 만족도의 직접 효과(H1)를 설정하되, 참여 행동으로의 전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로서 사회적 자본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그 조절 구조(H3, H4)를 추가로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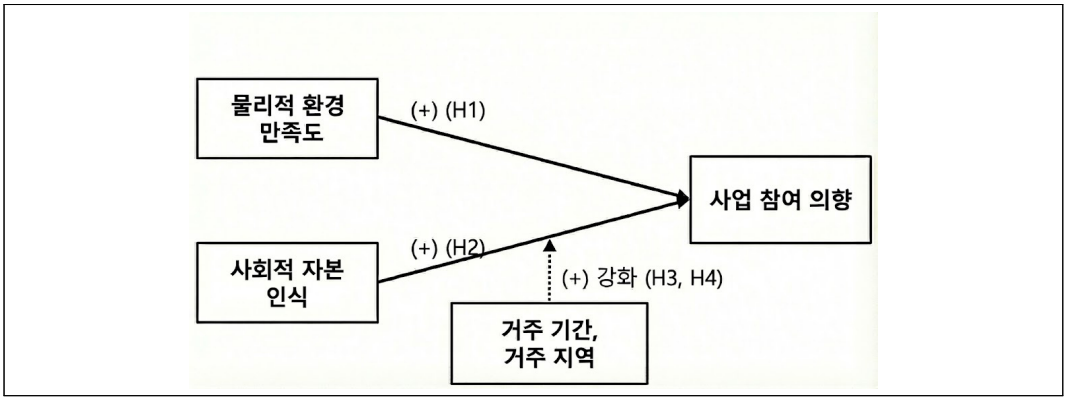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조절효과의 검증 대상을 물리적 환경 만족도가 아닌 사회적 자본 인식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리적 환경은 거주 만족도를 유지하거나 참여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기초적 조건의 성격을 지닌다(이경영 외, 2018; 강맹훈 외, 2017). 반면 이웃 간 신뢰와 소속감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은 주민의 수동적 태도를 능동적 참여로 전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다(김지영·정문기, 2024; 구기환, 2024).

또한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거주 기간과 거주 지역(아파트 중심의 신도시 여부)은 주민의 지역 내 네트워크 축적 정도와 관계적 고립 가능성을 반영하는 변수이다. 이러한 특성은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보다 주민 간 신뢰와 관계망 형성 과정에서 보다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거주 특성이 참여 행동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사회적 자본 인식을 중심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H1): 물리적 환경 만족도는 사업 참여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H2): 사회적 자본 인식은 사업 참여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H3): 거주 기간은 사회적 자본 인식이 참여 의향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강화할 것이다.
가설 4(H4): 신도시 거주자는 원도심 거주자에 비해 사회적 자본 인식이 참여 의향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이러한 가설들을 종합하여 도출한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 따르면, 물리적 환경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 인식이 각각 사업 참여 의향에 미치는 직접효과(H1, H2)를 상정하고 있으며, 이 중 핵심 추동 요인인 사회적 자본 인식이 참여 의향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거주 특성(거주 기간 및 거주 지역)이 조절효과(H3, H4)를 지니는 구조를 띠고 있다.

〈그림 1〉 연구 모형



위와 같은 가설과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 조절변수, 통제변수 및 종속변수를 구성하였으며,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도구는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구분	변수명	조작적 정의	설문 문항(척도)
종속 변수	사업 참여 의향	향후 마을공동체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	앞으로 살기좋은우리동네만들기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5점)
독립 변수	사회적 자본 인식	지역 내 사회적 자본 인식: 이웃 신뢰 및 소속감	우리 동네의 "이웃 간 신뢰와 소속감" 인식이나 체감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5점)
	주거·생활환경 만족도	주거/생활환경 예시: 주차, 보행, 청결 등	우리 동네의 주거/생활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5점)
	문화·휴식공간 만족도	문화·휴식공간 예시: 공원, 쉼터, 체육시설 등	우리 동네의 문화·휴식공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5점)
	복지·편의시설 만족도	복지·편의시설 예시: 경로당, 보육시설, 보건소 등	우리 동네의 복지·편의시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5점)
조절 변수	거주 기간	현 거주지(동)에서의 지속 거주 기간	귀하가 해당 지역(동)에 거주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거주 지역	신도시(분당)와 원도심(수정·중원)의 구분	성남시 내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분당=1, 수정·중원=0)
통제 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개인적 배경 특성 (연령, 성별, 경제활동 유무)	(연령) 귀하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직업)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 경제활동/비경제활동 재분류
집단 비교	이웃 소통·교류 만족도	이웃 간 소통·교류 예시: 동네잔치, 축제, 자생모임 등	우리 동네의 이웃 소통·교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5점)
	전반적 동네 만족도	거주지에 대한 총체적 만족 수준	우리 동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5점)
	1순위 사업 추진 분야	사업을 통해 가장 보강(추진)이 시급한 분야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히 보강해야 할 분야는 무엇입니까?

첫째, 독립변수는 거주민의 인식 차원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 요인(3개 하위요인)과, 사회적 자본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물리적 환경 만족도'는 마을의 환경·시설 인프라에 대한 평가로, 주거만족도의 핵심 요인으로 물리적 특성을 제시한 손예민·이건원(2024)의 논의에 기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① 주차·보행·청결 등을 묻는 '주거·생활환경', ② 공원·쉼터·체육시설을 포함하는 '문화·휴식공간', ③ 경로당·보육시설 등을 묻는 '복지·편의시설'의 세 가지 변수로 분리하여 투입함으로써, 어떤 유형의 환경·시설 만족도가 참여에 유의미한지 검증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 인식'은 지역 내 사회적 자본 인식(체감)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웃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는 시설이 아닌 사람(이웃)에 대한 관계적 인식을

측정하는 변수로, 사회적 자본을 구조적·인지적·관계적 차원으로 유형화한 Nahapiet & Ghoshal(1998)의 이론적 틀에 근거한다. 이들은 특히 관계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을 설명함에 있어 신뢰(trust)와 집단에 대한 동일시(identification)를 핵심 기제로 규명하였다. 여기서 동일시란 개인이 공동체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자신을 그 일부로 인식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지역사회 맥락에서의 '소속감' 혹은 '애착'과 개념적으로 상통한다.

둘째, 조절변수는 주민 참여의 맥락적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 거주 기간과 거주 지역을 설정하였다. '거주 기간'은 응답자가 현재 거주지(동)에서 생활한 기간을 의미하며, Li et al.(2025)이 제기한 거주 기간의 역설을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범주화하지 않고 연속형 변수로 투입하였다. '거주 지역'은 성남시의 이원적 도시 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계획된 신도시인 분당구와 원도심인 수정·중원구로 구분하였다. 분석 시에는 수정·중원구를 기준 집단으로 하고 분당구를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더미 변수 처리를 통해, 지역적 특성이 신뢰와 참여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분석하였다.

셋째, 통제변수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참여 의향에 미치는 외생적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연령, 성별, 경제활동 유무를 선정하였다. 연령은 연속변수로, 성별은 더미 변수로 처리하였다. 특히 직업의 경우, 단순 직종의 나열보다는 사회적 활동 가능 시간을 대변하는 '경제활동 유무'가 참여 기회비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 활동을 하는 집단(회사원, 자영업, 공무원 등)은 '경제활동', 그렇지 않은 집단(전업주부, 학생, 무직 등)은 '비경제활동'으로 재범주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넷째, 종속변수는 '사업 참여 의향'이다.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향후 살기좋은우리동네만들기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를 측정하였다. 측정값은 '전혀 없다(1점)'에서 '매우 있다(5점)'까지의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통계적 절차를 거쳤다. 첫째,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인식 격차를 규명하기 위해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실시했다. '이웃 소통 만족도'와 '동네 전반적 만족도'의 평균 차이 검증에는 표본 수의 불균형(N=650 vs N=29)과 등분산 가정 위배 가능성을 고려하여 Welch's t-test를 적용하였다. 이에 더해 분석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보하고자 5,000회 복원 추출 기반의 부트스트래핑 검정을 병행하였다. 또한, 희망 지원 분야의 우선순위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χ^2 test)을 통해 분석했다.

둘째, 일반 시민(비참여자)의 잠재적 참여 의향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모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성별, 직업)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물리적 환경 요인과 사회적 자본 요인이 종속변수인 참여 의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분석하도록 설계하였다.

셋째, 참여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주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에 포함되는 연속형 변수(이웃 신뢰, 거주 기간)는 평균 중심화 처리하였다. 이후 '사회적 자본 × 거주 기간' 및 '사회적 자본 × 거주 지역' 항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Ⅳ.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일반 시민(비참여자)과 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비교

(단위: 명, %)

구분	세부 구분	비참여자 (N=650)	참여자 (N=29)	전체 (N=679)
성별	남성	325 (50.0%)	8 (27.6%)	333 (49.0%)
	여성	325 (50.0%)	21 (72.4%)	346 (51.0%)
연령	20대	113 (17.4%)	1 (3.4%)	114 (16.8%)
	30대	129 (19.8%)	7 (24.1%)	136 (20.0%)
	40대	138 (21.2%)	10 (34.5%)	148 (21.8%)
	50대	146 (22.5%)	5 (17.2%)	151 (22.2%)
	60대 이상	124 (19.1%)	6 (20.7%)	130 (19.1%)
거주 지역	수정구	169 (26.0%)	7 (24.1%)	176 (25.9%)
	중원구	150 (23.1%)	13 (44.8%)	163 (24.0%)
	분당구	331 (50.9%)	9 (31.0%)	340 (50.1%)
직업 (경제활동 유무)	경제활동	436 (67.1%)	13 (44.8%)	449 (66.1%)
	비경제활동	214 (32.9%)	16 (55.2%)	230 (33.9%)

첫째, 성별 분포에서 두 집단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 시민(비참여자) 표본은 성별 할당을 통해 남녀 비율이 각각 50.0%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실제 사업 참여자 집단은 여성이 72.4%로 남성(27.6%)에 비해 약 2.6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현재 성남시 마을공동체 활동의 주도적 계층이 여성임을 보여준다.

둘째,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비참여자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참여자는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참여자 집단은 40대가 34.5%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24.1%로 그 뒤를 이어, 30·40대 중장년층(합계 58.6%)이 활동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20대 청년층의 참여율(3.4%)은 매우 저조하여 세대 간 참여 불균형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거주지역의 경우, 비참여자는 성남시 인구 비례에 따라 분당구(50.9%) 거주자가 가장 많았으나, 참여자는 원도심인 중원구 거주 비율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아파트 비중이 높은 신도시(분당)보다 단독·다세대 주택 중심의 원도심에서 공동체 활동에 대한 참여 유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거나, 해당 지역의 조직화가 더 활발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넷째, 경제활동 유무에 있어서도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비참여자의 과반수(67.1%)가 경제활동 인구인 것과 달리, 참여자 집단은 비경제활동 인구(전업주부, 학생, 무직 등)가 55.2%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이는 직장 생활로 인한 시간적 제약이 공동체 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주요한 물리적 장벽임을 시사한다.

요약하자면, 현재 성남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전형적인 참여자 프로필은 '원도심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30~40대 여성'으로 특정될 수 있다. 이는 향후 정책의 외연 확장을 위해 남성, 청년, 직장인, 신도시 주민 등을 유입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는 크게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자본 간의 인식 격차, 그리고 참여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로 요약할 수 있다.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비교

(단위: 점 / 5점 만점)

구분		전체 (N=679)		비참여자 (N=650)		참여자 (N=29)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독립1	주거·생활환경 만족도	3.42	1.05	3.41	1.04	3.66	1.17
	문화·휴식시설 만족도	3.58	1.00	3.58	1.00	3.55	1.12
	복지·편의시설 만족도	3.44	0.87	3.44	0.85	3.34	1.17
독립2	사회적 자본 인식	2.85	0.85	2.83	0.84	3.28	1.00
종속	사업 참여 의향	-	-	3.30	0.85	4.45	0.69

주: 종속변수인 '사업 참여 의향'은 대상 집단별로 측정 문항의 문구와 맥락이 달라(비참여자는 향후 신규 참여 의향, 참여자는 향후 재참여 및 지속 의향). 서로 다른 심리 기제를 묻는 두 척도를 단순 합산하는 것은 통계적 오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전체(N=679) 합산 평균 및 표준편차는 산출하지 않고 공란(-)으로 처리함

첫째, 전체 응답자의 인식 경향을 살펴보면 환경·시설(독립1)에 비해 관계(독립2)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 표본의 동네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3.67점으로 비

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물리적 환경 요인인 문화·휴식공간(3.58), 복지·편의시설(3.44), 주거·생활환경(3.42)이 모두 3점대 중반의 고른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사회적 자본 인식(2.85)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성남시 거주민들이 하드웨어적 인프라에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으나, 이웃 간의 유대나 신뢰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결핍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참여 여부에 따른 집단 간 비교 결과, 물리적 환경보다는 사회적 자본 영역에서 뚜렷한 격차가 확인되었다. '사회적 자본 인식' 응답에서 참여자 집단(3.28)은 비참여자 집단(2.83)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 경험이 개인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물리적 환경 만족도'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참여자가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편의시설'의 경우 참여자의 만족도(3.34)가 비참여자(3.44)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참여자들이 마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부족한 인프라 문제를 더 예민하게 인지하게 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비참여자의 향후 '사업 참여 의향'은 평균 3.3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3점)'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현재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도 잠재적인 참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활동 참여 의향에 대한 응답에서 보통(43.4%)과 있음(42.2%)을 응답한 비율은 총합 85.6%에 달했다(한병훈 외, 2025). 따라서 이들의 참여 의향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어떠한 요인을 자극해야 하는지가 본 연구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영향 요인 분석에 앞서,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과 경험이 없는 일반 시민(비참여자) 간에 거주지 인식과 정책 수요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규명하기 위해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표 4〉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인식 비교

구분	비교 항목	비참여자	참여자	통계 수치	유의확률 (p)	Bootstrap p-value	Bootstrap 95% CI (신뢰구간)
만족도 비교	이웃 소통·교류 만족도	3.03점	3.52점	t = -2.639*	.013	.021*	[-0.838, -0.127]
	동네 전반적 만족도	3.66점	3.97점	t = -1.519	.139	.220	[-0.677, 0.108]

주1: 평균값(Mean)을 제시함
주2: t 및 p 값은 Welch's t-test 기준임 (* p<.05)
주3: Bootstrap 결과는 5,000회 복원 추출(Resampling)을 통한 결과임

첫째, 거주지 만족도에 대한 차이 검증(t-test) 결과, 흥미로운 대조점이 발견되었다. 우선 '이웃 간 소통 및 교류 만족도'에서는 참여자 집단의 평균(3.52)이 비참여자 집단(3.0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2.639, p<.05). 나아가 표본 불균형으로 인한 통계적 불안정성을 통제하기 위해 5,000회 복원 추출을 통한 부트스트래핑 검정을 추가 실시한 결과에서도, 유의확률(p=.021)이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95% 신뢰구간[-0.838, -0.127]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강건함(robust)이 확인되었다. 이는 실제 공동체 활동을 경험해 본 주민일수록, 이웃 관계가 주는 정서적 효능감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동네 전반적 만족도'에서는 두 집단 간의 통계적 유의차(p=.139)가 발견되지 않았다. 부트스트래핑 검정 역시 유의확률(p=.220)과 0을 포함하는 95% 신뢰구간[-0.677, 0.108]을 보여, 표본 크기에 따른 편향을 보정한 상태에서도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일관되게 지지했다. 참여자(3.97)가 비참여자(3.66)보다 다소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공동체 활동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 간에 이웃 관계와 같은 사회적 측면에서는 뚜렷한 인식 차이가 나타난 반면, 주차·청결·편의시설 등 물리적 여건을 포괄하는 동네 전반적 만족도 수준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표 5〉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선호도 비교

구분	비교 항목	순위	비참여자	참여자	통계 수치	유의확률 (p)
정책 우선순위	가장 시급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분야	1	생활환경 개선(43.7%)	공동체 활동 지원 (31.0%)	χ^2 = 63.17***	<.001
		2	문화·여가 시설(19.7%)	문화·여가 시설(17.2%)	-	
		3	지역경제 활성화(15.4%)	복지·돌봄 서비스(17.2%)		
		4	복지·돌봄 서비스(8.5%)	거버넌스 구축(10.3%)		
		5	거버넌스 구축(6.0%)	생활환경 개선(10.3%)		

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χ^2 test)은 통계적 독립성과 응답의 상호배타성이 확보되는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수행함.

둘째,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교차 분석(χ^2 test) 결과, 두 집단이 바라보는 마을의 지향점이 확연히 다름이 확인되었다(χ^2=63.17, p<.001). 일반 시민(비참여자)은 설문조사 내용 중 사업 추진 관련 가장 시급히 보강해야 할 분야로 '생활환경 개선(주차장, 도로, 안전시설 등)'을

1순위(43.7%)로 꼽아, 낙후된 물리적 인프라 확충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 뒤를 이어 문화·여가 시설(19.7%), 지역상권 등 경제 활성화(15.4%), 복지·돌봄 서비스(8.5%), 거버넌스 구축(6.0%) 순으로 정책 수요가 나타나 주로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혜택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에게 마을은 '살기 편해야 하는 공간(space)'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대조적으로, 참여자 집단은 '주민 주도 공동체 활동 지원'을 가장 시급한 과제(31.0%)로 선택하였다. 이어 문화·여가 시설(17.2%), 복지·돌봄 서비스(17.2%), 거버넌스 구축(10.3%), 생활환경 개선(10.3%), 경제 활성화(10.3%)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일반 시민 집단에서는 생활환경 개선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보였으나, 참여자 집단에서는 해당 항목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신 관계 형성과 사회적 자본을 지원하는 항목들이 상위 우선순위에 포함되는 특징이 확인되었다. 이는 활동을 경험해 본 주민들은 마을을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는 관계망(community)'으로 인식하며, 이를 지속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더 갈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종합하면, 비참여자(일반 시민)는 환경·시설(하드웨어)의 결핍을 호소하는 반면, 참여자는 관계(소프트웨어)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간극은 일반 시민을 참여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상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이어지는 회귀분석에서 물리적 환경 요인이 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비참여자의 사업 참여 의향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거주 특성(기간, 지역)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와 같으며, 모형의 설명력(Adj. R^2)은 모델 1에서 9.5%, 조절변수가 투입된 모델 2와 모델 3에서 각각 1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델임이 확인되었다(F=8.55, p〈.001). 세부적인 결과 분석은 아래와 같다.

첫째, 독립변수의 주효과를 분석한 [모델 1]을 통해 가설 1과 가설 2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물리적 환경 만족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하위 변수인 주거·생활환경(β=-.013), 문화·휴식공간(β=.038), 복지·편의시설(β=-.046)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물리적 환경 만족도가 참여를 촉진할 것"이라는 〈가설 1〉이 기각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문화·체육시설, 공원, 편의시설과 같은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공동체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로 연결되지는 않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사회적 자본 인식(β=.318)은 참여 의향에 가장 강력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이웃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이 높을수록 참여 의향이 뚜렷하게 증가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표 6〉 회귀분석을 통한 주효과 및 조절효과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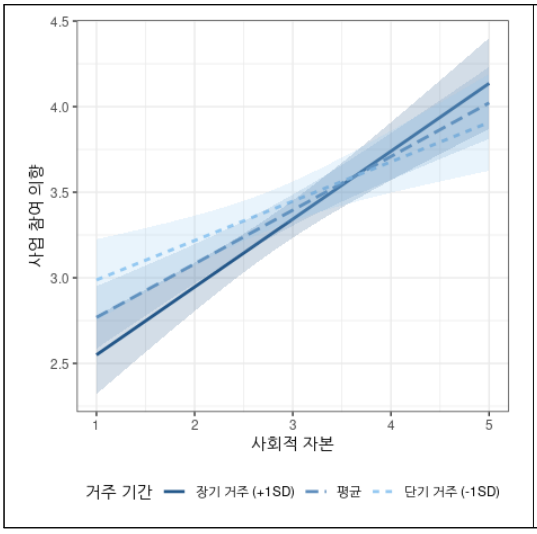
변수 구분	변수명	모델 1 (주효과)	모델 2 (거주기간 조절)	모델 3 (지역 조절)
통제변수	(상수항)	2.51***	3.18***	3.18***
	연령	0.004	0.004	0.004
	성별	-0.083	-0.092	-0.012
	경제활동	-0.016	-0.018	-0.012
독립변수1 (물리적 환경)	주거·생활환경 만족도	-0.013	-0.013	-0.005
	문화·휴식공간 만족도	0.038	0.045	0.048
	복지·편의시설 만족도	-0.046	-0.044	-0.054
독립변수2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인식	.318*	.313*	.220*
조절변수	거주 기간	-.059*	-.055*	-.060*
	거주 지역 (1=분당)	0.045	0.035	0.038
상호작용항	신뢰 × 거주기간	-	.069*	-
	신뢰 × 분당구	-	-	.172*
모형 적합도	F-값 (p〈.001)	8.55	8.23	8.22
	수정된 R^2	0.095	0.100	0.100

(주: * p〈.05, ** p〈.01, *** p〈.001 / 수치는 비표준화 계수(β)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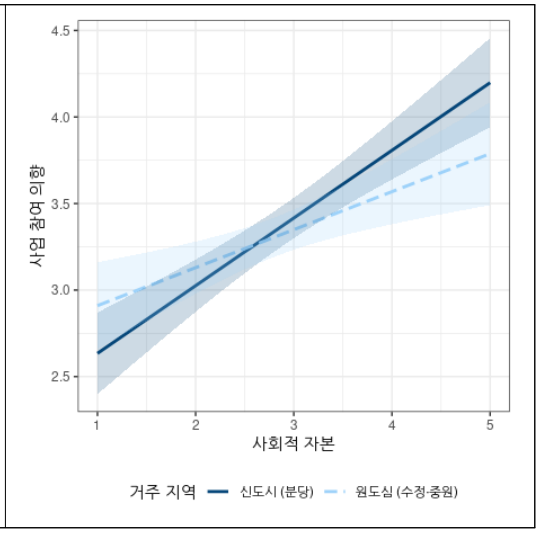
둘째, 거주 기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모델 2]를 통해 가설 3을 검증하였다. 우선 거주 기간의 주효과는 부(-)의 방향(β=-.055, p〈.05)으로 나타났다. 이는 Li et al.(2025)이 언급한 거주 기간의 역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오히려 타성에 젖거나 지역 활동에 소극적이 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상호작용항인 '사회적 자본 × 거주 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β=.069, p〈.05)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절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제시된 〈그림 2〉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 인식이 높아질수록 단기 거주자(-1SD, 가장 촘촘한 점선)에 비해 장기 거주자(+1SD, 실선) 집단에서 사업 참여 의향이 더 가파른 기울기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자본 인식이 장기 거주자의 참여 저하를 상쇄하는 완충 기제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참여가 저조할 수 있으나, 이웃 간의 신뢰가 전제될 경우 장기 거주자가 축적한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이 참여 동기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그림 2〉 거주 기간의 조절효과



〈그림 3〉 거주 지역의 조절효과



셋째, 거주 지역(신도시 여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모델 3]을 통해 가설 4를 검증하였다. 지역 변수(분당구 거주)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p>.05$),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사회적 자본 × 분당구'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정(+)의 값($\beta=.172$, $p<.05$)을 보였다. 이는 원도심(수정·중원구)에 비해 아파트 중심의 계획도시인 분당구에서 사회적 자본 인식이 참여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강력함을 의미한다.

〈그림 3〉의 상호작용 그래프는 이러한 차이를 보여준다. 사회적 자본 인식이 낮은 구간에서는 신도시(분당) 거주자의 참여 의향(실선)이 원도심 거주자(점선)보다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아질수록 신도시 거주자의 참여 의향은 원도심 거주자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며, 일정 수준 이후에는 그 값이 원도심 거주자를 상회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는 익명성이 강하고 이웃 관계가 단절되기 쉬운 환경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환경일수록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순간, 그것이 공동체 참여로 이어지는 탄력성이 원도심보다 훨씬 큼을 보여준다. 즉, 신도시 지역에서의 공동체 활성화는 물리적 시설 확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주민 간 신뢰 형성과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개입이 핵심적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가설 4〉는 채택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남시 '살기좋은우리동네(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대상으로,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인식 격차를 규명하고, 잠재적 참여 의향을 이끄는 핵심 기제로서 사회적 자본 인식과 거주 특성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의 논의와 같이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에는 마을을 바라보는 가치 인식의 명확한 간극이 존재했다. 비참여자는 주차, 도로, 청결 등 물리적 생활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는 기능적 욕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참여자는 이웃과의 소통과 공동체 활동 지원을 중시하는 관계적 욕구 단계로 진입해 있었다. 이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참여 경험을 통해 욕구의 위계가 상승하는 '학습의 과정'임을 시사한다.

둘째, 비참여자의 행동 전환을 이끄는 주된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두 경쟁가설(가설 1, 가설 2)의 검증 결과,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 환경 만족도'는 기각된 반면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회적 자본 인식'만이 채택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주거·생활환경, 문화·휴식공간, 복지·편의시설등 세 가지 하위 차원의 물리적 만족도는 향후 참여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와 대비적으로, 이웃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이라는 사회적 자본 인식은 참여 의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물리적 환경이나 시설 확충이 곧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중심 접근이 지니는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비참여 시민을 실제 참여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예산의 초점을 물리적 인프라 개선뿐 아니라 주민 간 관계 형성과 신뢰 구축과 같은 사회적 자본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거주 기간의 역설과 이에 대한 조절효과가 규명되었다. 분석 결과, 거주 기간이 참여 의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부(-)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사회자본론에서 제시하는 가정과 달리, 한 지역에 장기간 거주할수록 과거 정책 경험이나 지역 변화 과정에서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공동체 활동에 대해 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른바 '거주 기간의 역설(Li et al., 2025; 구기환, 2024)'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장기 거주가 곧 능동적 참여로 이어진다는 가정은 현대 도시 환경에서 반드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사회적 자본 인식이 참여 의향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거주 기간이 길수록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장기 거주자가 평소에는 지역 활동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일 수 있으나, 이웃 간 신뢰가 형성될 경우 이를 참여 행동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장기 거주자의 잠재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거주 기간보다

지역사회 내 신뢰와 관계 형성이라는 사회적 요인이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넷째, 신도시(분당) 지역에서 사회적 자본 인식의 참여 유발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파트 중심의 분당구 거주자는 원도심 거주자에 비해 이웃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참여 의향이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는 익명성이 강한 신도시일수록 잠재된 관계 욕구가 크며, 일단 신뢰 자본이 투입되면 공동체 형성의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음을 실증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정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위한 정책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비참여자에게 처음부터 공동체 의식을 요구하는 접근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비참여자는 관계 형성보다 주차·환경 정비·돌봄과 같은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주민 참여가 추상적인 공동체 담론이 아닌,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문제 해결 경험을 통해 촉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민 간 신뢰 역시 인식 개선이나 캠페인을 통해 주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담이 낮은 공동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상호 예측 가능성과 협업 경험 속에서 형성된다. 즉, 신뢰는 참여의 선결 조건이라기보다 반복적인 공동 행동의 결과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경험의 누적이야말로 비참여자를 참여자로 전환시키는 핵심 기제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집 앞 정원 조성, 환경 정비, 육아(돌봄) 등 주민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의제를 통해 공동 행동의 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이러한 기능적 협업 경험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관계 중심의 모임이나 네트워크 활동으로 확장하는 단계적 참여 구조가 요구된다(당인숙·류진아, 2017; 진은애·이우종, 2018). 그러나 주민이 스스로 이러한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생활 기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실행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행정과 중간지원 주체의 전문적·교육적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물리적 시설의 만족도는 참여를 담보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재 행정 직영 체제로 전환한 지자체들은 가시적 성과와 행정 효율성에 치중하여, 정작 중요한 '신뢰'와 '소통'을 간과할 우려가 크다. 현장의 복잡한 행정 절차는 주민 활동의 제약 요인이 되므로, 이를 원스톱(one-stop)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간소화된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진정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설 건립 수나 단순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아닌, '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 지수'나 '이웃 신뢰도'를 핵심 성과지표(KPI)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원 조직의 역할 또한 단순히 행정 업무의 대행보다는, 지역 내 다양한 자원(대학, 복지관, 사회적 경제 등)과 주민을 잇는 허브 기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신뢰를 중개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마을 코디네이터'와 같은 인적 지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복원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 결과 지역 특성에 따라 신뢰가 작동하는 기제가 상이함이 확인된바, 획일적인 공모사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별 맞춤형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신도시(분당구)는 신뢰 형성에 따른 참여 민감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 중심의 주거 환경인 이곳은 당위적 접근보다는 “이것이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높인다”는 공동의 이익을 설계하여 제시할 때 참여 동기가 강화된다. 따라서 육아, 취미, 인문학 등 취향 기반의 소모임을 적극 지원하여 파편화된 개인들을 느슨하게 연결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상의 학술적·정책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며,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불균형 문제다. 비참여 시민(650명)에 비해 실제 참여자 표본(29명)이 적어 통계적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참여자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여 집단 간 비교 분석의 정교함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변수 측정의 한계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 자료는 엄밀한 학술 연구 목적보다는 정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용적 지표와 응답 편의성을 우선하여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자본 인식’과 같은 다차원적 개념을 이웃 신뢰와 소속감을 포괄하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비록 세부적인 하위 차원을 분리해내지 못한 한계는 있으나, 추상적인 심리 기제에 대해 주민이 체감하는 총체적 인식을 직관적으로 포착하였다는 점에서 대리 지표(proxy)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횡단면(cross-sectional) 조사의 한계다. 본 연구는 특정 시점의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참여 경험이 신뢰를 높이는지, 신뢰가 높은 사람이 참여하는지에 대한 인과적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종단적 연구가 요구된다.

종합하면, 성남시 살기좋은우리동네만들기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시설의 외형이나 예산 규모보다, 주민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기반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본 연구는 참여를 견인하는 핵심 요인이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이웃 신뢰와 소속감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성남시의 살기좋은우리동네만들기 사업이 행정 주도의 사업 관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주민 간 관계 형성과 신뢰 축적을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맹훈 외. (2017). 도시재생사업 평가요소에 대한 주민-전문가 간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8(3): 45-59.

강종구·문국경. (2022). 지역의 사회적 자산이 도시재생사업 주민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한국주거학회논문집」, 33(1): 87-95.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25). 「2025 경기도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고현종·김정희·강준혁. (2025). 주거환경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의 삼원 조절-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사회」, 16(1): 65-84.

구기환. (2024).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 지역공동체의식과 정치성향의 효과 검토.「지방정부연구」, 28(1): 101-124.

국가데이터처. (2025). 「Social Indicators in 2024」. 2025. 3. 25. 보도자료.

김근호·이영창·이은영. (2012).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참여에 관한 주관적 인식유형. 「한국디자인포럼」, 35: 27-38.

김미연·김인설. (2018). 마을지 만들기 사업의 공동체적 경험과 의미, 그리고 한계: 주민참여 수준과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2(1): 109-142.

김지영·정문기. (2021).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 비참여에 관한 연구: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중심으로.「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3): 159-185.

김지영·정문기. (2023). AHP를 활용한 주민참여 및 비참여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32(3): 71-99.

김지영·정문기. (2024).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연구: 형식적 참여집단 및 비참여 전향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6(1): 57-78.

김흥순·원준혁. (2013). 주민참여 및 인식도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특성에 대한 고찰: 서울시 마을 만들기 3 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 마을 만들기 3 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서울도시연구」, 14(1): 93-111.

노병찬·주덕. (2016).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참여 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 분석: 자발적 공동체 참여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1): 241-259.

당인숙·류진아. (2017). 농촌 마을만들기 참여주민의 공동체 의식 영향요인. 「농촌지도와 개발」, 24(4): 265-278.

박병훈·정의철. (2021). 이웃과의 관계 만족도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동산연구」, 31(3): 7-28.

서울시. (2024). 「'외로움 없는 서울' 만든다…국내 첫 종합대책」. 2024. 10. 25. 보도자료.

성남시. (2016).「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계획」.
성남시. (2018).「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성순아·오후·황희연. (2015).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활동이 지속적 참여 동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청주시 사직 2 동을 중심으로.「대한지리학회지」, 50(4): 393-406.
손예민·이건원. (2024). 주거만족도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도시재생사업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도시재생」, 10(2): 5-24.
이경영·전희정·김은정. (2018). 주거환경만족도가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지역애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27(1): 89-118.
이영아. (2013).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의 참여와 배제: 영주시 삼각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사례로.「공간과 사회」, 23(4): 102-130.
조소진·정환영. (2017). 역량강화 중심의 마을 만들기 참여에 따른 주민인식변화 분석: 충청남도 공주시를 사례로.「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1): 89-105.
진은애·이우종. (2018).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가 사회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부산 아미초장 도시재생사업지역을 중심으로.「한국주거학회논문집」, 77-88.
채진해·허윤경·이현정·김영일. (2020).「사회적 가치 지향에 대한 참여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인식 연구」. 서울연구원
한병훈·오윤이·나보리. (2025).「성남시 살기좋은우리동네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성남시정연구원.
Arnstein, S. 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4): 216-224.
Conway, B. P., & Hachen Jr, D. S. (2005). Attachments, grievances, resources, and efficacy: The determinants of tenant association participation among public housing tenants. *Journal of Urban Affairs*, 27(1): 25-52.
Fung, A. (2006). Varieties of participation in complex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 66-75.
Li, Y., Wei, Q., Guo, J., Song, Y., & Wu, X. (2025). What are citizens' concerns in urban regeneration? Exploring critical factors for participatory intention, a case from Shanghai. *Frontiers in Psychology*, 16: 1668925.
Mansbridge, J., Bohman, J., Chambers, S., Christiano, T., Fung, A., Parkinson, J., ... & Warren, M. E. (2012). *A systemic approach to deliberative democracy*. Deliberative Systems: Deliberative Democracy at the Large Scale, 1-26.
Nahapiet, J., & Ghoshal, S. (1998).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2): 242-266.
Nie, M., & Feng, T. (2025). What drives public participation in urban regeneration? An integrated choice and latent variable analysis. *Scientific Reports*, 15.

OECD. (2025). *Social Connections and Loneliness in OECD Countries*.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WHO. (2025). *From Loneliness to Social Connection: Charting a path to healthier societies*.

Woo, A., Joh, K., & Yu, C. Y. (2023). Making space and building social capital: Unpack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ommunity center use and social capital in urban regenerated neighborhoods in Seoul, Korea. *Habitat International*, 132: 102742.

한 병 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박사학위(학위논문: 정책분야별 재정지출이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재정관리역량의 조절효과)를 취득하고, 서울시 기획조정실 정책컨설팅전문요원, 성남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정부역량이 삶의 질에 미치는영향: 정부성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2022),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2023) 등이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재무행정, AI 공공 거버넌스, 마을공동체, 연구방법론 등이다(bhhan2024@gmail.com).